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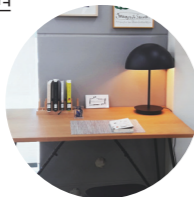
# 사서가 알려주는 우리 도서관 독서 명당

도서관을 자주 찾는 사람이라면 모두 고개를 끄덕여줄 것 같은 생각 하나, 내가 좋아하는 '그 자리'가 있다는 것 꼭 그 자리가 내 것인 것 같아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 공간을 침범당한 기분조차 드는 자신만의 '명당'이 있을 것이다. 그렇다면 사서들이 생각하는 각 도서관 독서 명당은 어디일까?

글. 사진. 고양시 도서관센터

## [아람누리도서관] 앉으면 읽고 싶어지는 의자

아람누리도서관 종합자료실 한쪽에는 1인용의 작은 책상 하나가 있다. 그리고 그 위에는 책 한 권이 펼쳐져 있다. 그 책은 바로 사서가 매일 아침,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권하는 '오늘의 책'이다. 이 자리 근처에는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사서가 매일 새롭게 뽑은 테마 도서, 권하고 싶은 신작 도서 그리고 너무 많은 인기로 예약(대기)조차 할 수 없는 베스트셀러들이 꽂혀 있다.



## [식사도서관] 4층 테라스와 일광욕석

4층 테라스, 화려한 식사지구와 이질적이면서도 조화로운 산천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. 날이 너무 춥거나 덥지 않으면 독서도 가능한데, 특히 햇볕 좋은 봄날 오전에 반쯤 누워 책과 하늘을 번갈아 보는 묘미가 있다.

또한, 식사도서관 종합자료실 구석자리도 도서관의 명당자리인데, 이 자리는 아침 해가 정면으로 들어 햇볕을 온몸으로 맞을 수 있는 '일광욕' 자리이기도 하다.



## [화정어린이도서관] 극기(克己)의 자리, 보상(報償)의 자리

화정어린이도서관은 놀이터가 바로 옆에 있어 어린이들이 두 곳을 쉴 새 없이 자유롭게 오간다. 가끔 저것이 독서인지, 극기인지 모를 장면을 보게 되는데 놀이터에서 뛰노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책을 읽는 어린이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.

보상의 자리는 마법천자문, 내일은 실험왕, 과학수사대 등 학습만화들로 둘러싸여 있다. 특히 코너에 있는 파란 스톨은 아무리 착한 어린이라도 한번 앉으면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명당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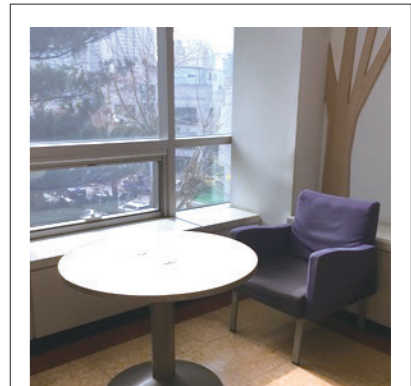
## 도서관별 명당 엿보기



**백석도서관 연속간행물실**  
#아사꽃구경 #잡지도보고꽃도보고 #이번봄도기다릴게 #선크림필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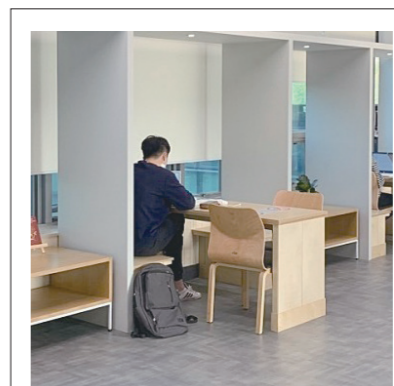
**주업어린이도서관 세계어린이도서실**  
#선착순1명 #눕거나앉거나 #캐힐아님\_구르면안돼요 #어른들은 가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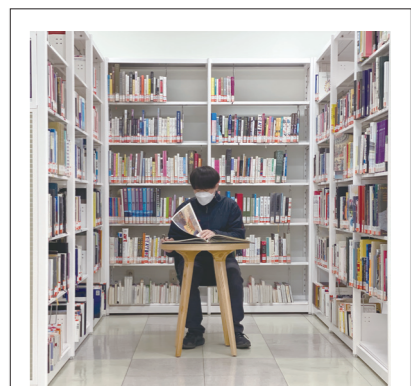
**한빛도서관 종합자료실**  
#두넛디스터브 #구석본능 #모두가호시탐 탐노리는 #이자리는이제\_제자립니다



**아람누리도서관 3층 로비**  
#정발산의사계 #통창뷰 #눈건강독서 #직원들이부러워함 주의



**화정도서관 종합자료실**  
#네가알던\_화정도서관이\_아니야 #자기만의방 #분리된듯연결된



**아람누리도서관 예술자료실**  
#삼면이예술자료로둘러싸인 #내서재인척 #예술책의바다에서표류중